

허리 휘는 로스쿨, 등록금 2000만원 시대

-성균관대 2146만원 가장 비싸...고려대>연세대>경희대 順
-건국대 올해 9.8% 인상...장학금은 줄어 부담 가중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학년인 이○○ 씨(31)는 등록금 납부를 거부했다. 새학기 등록을 앞두고 학교 측에서 연간 등록금을 151만 4000원 인상했기 때문이다. 금년에 부담할 등록금은 1848만원으로 늘어났다. 반면 장학금은 줄었다. 학교는 장학금 비율을 75%로 약속했다가 최근 로스쿨생들에게 문자로 장학금 비율을 40%로 줄인다고 통보했다.

Y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이씨는 “비싼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 건국대를 선택했다”며 “등록금 인상과 장학금 축소로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됐다”고 말했다.

건국대 로스쿨이 금년에 등록금을 전년에 비해 9.8% 올려 로스쿨 가운데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이면서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체 학생 128명 중 60여명이 납부 기한을 넘겨 등록금을 내지 않고 있다.

전국 25개 로스쿨 중 10개가 등록금 인상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중앙대는 등록금을 작년에 비해 8%(140만원) 인상했다. 서강대는 3.8% 올렸고 성균관대와 고려대, 이화여대, 강원대의 인상률은 3%였다. 이들 10개 대학의 평균 인상률은 3.9%였다. 이에 로스쿨생들의 모임인 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는 지난 3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기자회견장에서 ‘로스쿨 등록금 폭등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2009년 출범한 로스쿨 제도가 ‘돈스쿨’로 전락했다는 오명과 함께 서민들의 법조계 진출을 막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한 해 등록금이 2000만원을 넘는 로스쿨은 세 곳이다. 성균관대 로스쿨의 등록금이 2146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고려대 2074만원, 연세대 2048만원이었다. 경희대, 아주대, 영남대, 동아대 로스쿨이 각각 1998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국립대 중에서는 서울대 로스쿨이 1343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에 비해

0.25%를 인하한 액수다. Y대학교 로스쿨을 다니는 한 학생은 “부모님에게 학비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고 있다”며 “솔직히 서민들이 이 등록금을 내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기존 법대 교수들이 동일한 내용을 가르치는 만큼 등록금을 올려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김명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무국장은 “교수를 두 배 이상 더 뽑았기 때문에 등록금이 오른 것은 어쩔 수 없다”며 “차상위 계층까지는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 고

25개 로스쿨 등록금 현황

(2014년 기준, 금액순)

대학	2009	2013	2014
성균관대	2000만원	2084만원	2146만원
고려대	1900만원	2013만원	2074만원
연세대	1950만원	2048만원	2048만원
경희대	960만원	1998만원	1998만원
아주대	1800만원	1998만원	1998만원
동아대	1800만원	1998만원	1998만원
영남대	1840만원	1998만원	1998만원
한양대	1800만원	1922만원	1970만원
이화여대	1680만원	1863만원	1918만원
중앙대	1530만원	1750만원	1890만원
인하대	1800만원	1870만원	1870만원
한국외대	1600만원	1760만원	1811만원
서강대	1440만원	1730만원	1795만원
건국대	1600만원	1545만원	1697만원
원광대	1500만원	1600만원	1600만원
서울대(국립)	1410만원	1346만원	1343만원
전남대(국립)	959만원	1037만원	1037만원
전북대(국립)	930만원	1031만원	1031만원
경북대(국립)	1014만원	1014만원	1014만원
강원대(국립)	1000만원	976만원	1005만원
서울시립대(시립)	910만원	1004만원	1004만원
제주대(국립)	999만원	1003만원	1003만원
충북대(국립)	982만원	982만원	982만원
부산대(국립)	948만원	975만원	977만원
충남대(국립)	863만원	965만원	965만원

자료: 대학알리미, 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한국경제신문 인용)